

## 아동 행복감과 모 행복감, 모 일자리 만족도 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김시현\*·우선영\*\*

### 초 록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취업모의 다중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 영역에서 아동 돌봄과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은 취업모의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모의 취업 여부가 아동의 인지 및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취업모의 일자리 환경과 아동의 행복감이 갖는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및 일 만족도가 모의 행복감과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연구의 모형이 연구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 일-양육 이점과 일자리 만족도는 모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의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모 행복감은 아동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취업모의 일-양육 이점과 일자리 만족도는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모의 행복감과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아동 행복감, 취업모, 일-가정 양립, 한국아동패널

\* 제1저자: 고려대학교 대학정책연구원 연구교수(ksihyun7@gmail.com)

\*\* 교신저자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sunniew@kedi.re.kr)

## I. 서론

행복은 긍정심리학에서 연구되는 주요 주제 중 하나에 해당한다. 개념적으로는 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정서 등을 포함하고, 가치있는 삶(a good life)의 근본 요인에 해당한다(Cankaya, 2020: 433).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경쟁적인 학업풍토 속에서 아동이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인지적 평가에서는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는 반면, 이들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는 다른 OECD 국가의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2017).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혹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박병선, 2019) 아동의 행복에 대한 다각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 행복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구체적으로는 주양육자에 주목하였다. 가족은 아동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으로, 아동의 심리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 구성원 관계의 질은 아동의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SWB)에 영향을 미치고(Goswami, 2014), 아동의 행복감은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가족이란 둘러싼 환경과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가족, 특히 주 양육자와의 심리적 유대감, 애착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심리적 정서를 획득한다. 따라서 주 양육자와의 관계는 아동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행복한 엄마와 행복한 아이의 관계는 취업모의 상황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취업모는 취업 상태인 엄마, 즉 직장에서는 근로자인 동시에 가정에서는 아이의 양육자 역할을 하는 엄마를 지칭한다. 취업모는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요구받으며, 일-가족 갈등을 경험한다. 맞벌이 여성의 일 가족 갈등이<sup>1)</sup>이 맞벌이 남성이나 홀벌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양소남·신창식, 2011: 77),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주 책임자가 여성, 즉 모라는 점과 맞닿아있다. 취업모들은 전업모와 달리 오랫동안 아이를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아이에게 안쓰러움을 느낀다. 또한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죄책감을 느낀다. 즉 취업모들은 일과 가정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나, 전업주부처럼 육아에 전념하지 못함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다(김나현 외, 2013; 양소남·신창식, 2011). 서

1) 일과 가족 내 역할의 갈등(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은 두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압력이 여러 이유로 인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Greenhaus & Beutell, 1985).

구에서도 맞벌이 가정의 부부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만, 때때로 자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Haddock & Rattenborg, 2003). 맞벌이 부부에게는 많은 난제들이 놓여져있는데, 특히 취업모는 정서적 단절과 외로움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Malinen et al., 2010; Stafford, 2016; Afifi et al., 2020 재인용).

취업모가 속한 일과 가정이라는 두개의 영역이 연결되는 과정은 전이이론(Spillover)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취업모는 일과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여, 하나의 영역에서 경험한 감정적 상태를 다른 하나의 영역에 전달할 수 있다. 취업모의 직장 내 경험은 취업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마가 직장에서 느끼는 성취감, 만족감, 일과 양육을 함께 함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은 아이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엄마가 근로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과 근로자와 아이 양육자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얻는 이점이 본인의 행복감과 나아가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취업모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며 직면하는 어려움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안나·권영숙, 2014; 성정혜·김춘경, 2019; 예호선·안정신, 2020). 엄마가 일과 아이 양육을 함께 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엄마가 근로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과 근로자와 아이 양육자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얻는 이점이 본인의 행복감과 나아가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및 일자리 만족도가 모의 행복감과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엄마가 일자리에서 느끼는 만족감, 일과 아이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며 얻는 이점이 엄마의 행복감을 통해서 아동의 행복감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사회와 가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은 모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취업모가 지각하는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은 모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 행복감의 개념

행복은 심리학에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거나 긍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정서로 정의된다(Diener, 2000;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행복은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의 용어와 혼용되는데, 이들은 본인의 일상생활을 포함한 삶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으나 각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조금씩 상이하다(심재휘·이기혜, 2018). 김신영·백혜정(2008)에 따르면 삶의 질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 데 반해 행복은 가장 구체적이고 좁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Carr(2004)는 행복을 긍정적인 정서의 개념으로 보았으며, Argyle(2001)는 행복을 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로서 보았다(Badri et al., 2018). 또한 정이나(2015)는 선행연구의 정의를 바탕으로 행복감을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가 높으며 부정 정서가 낮은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aftei, Holman & Cârlig(2020)은 Lyubomirsky, Sheldon, and Schkade(2005)의 정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감정의 빈도 및 높은 삶의 만족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인식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통해 행복은 심리적 안녕(well-being) 상태에서 경험하는 정서로 그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종백·김태은, 2008).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은 매우 낮은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에 비해 학습난이도가 상승하며, 경쟁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해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에는 불안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윤형철·은혁기, 2014)는 점에서 이 시기의 아동 행복감은 낮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동기는 인격 형성의 주요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행복감은 이후의 성격과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신성철, 2015). 예로 행복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 습관의 형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이상록·김

은경·윤희선, 2015). 반면 아동의 낮은 행복감은 이후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원숙·심재웅, 2018). 긍정적 심리적 자본으로서 행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후의 학교 성공과 아동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행복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다(Gilman & Huebner, 2003; López-Pérez & Fernández-Castilla, 2018; Verkuyten & Thijs, 2002). 전술하였듯이 국가 비교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감이 OECD 국가 중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보고 되는데, 행복감이 어린 시기에 형성되며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자질이라는 점에서 학령 초기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은 중요하다(이은지, 2020).

## 2. 취업모의 다중역할

취업모는 취업 상태인 엄마, 즉 직장에서는 근로자인 동시에 가정에서는 아이의 양육자 역할을 하는 엄마를 지칭한다. 여성의 고학력화, 남녀평등의식, 경제적 필요성 등의 이유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며<sup>2)</sup>, 워킹맘, 직장인엄마, 일하는엄마, 취업맘 등으로 불리는 이들의 다중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상 성차별을 금지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의 고용 촉진을 동시에 추구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다. 1987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개정해오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 직장 내 육아시설 설치 등과 같이 여성이 취업자인 동시에 가족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움직임의 근간이 되었다.

취업모의 다중 역할 수행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지만, 가정의 영역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여성에게 퇴근 후 가정은 또 다른 직장이라는 부담감을 가중시킨다. 실제 맞벌이 부부가 가사 및 양육에 소요하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가정의 일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의 가정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31분인 것에 반해 남성은 39분, 여성의 가족 및 가구원 돌보

2) 통계청(2019a)에 따르면, 2018년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6.3%로, 10쌍 중 5쌍은 맞벌이 부부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 여성의 규모를 보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주 연령층인 30~34세 여성의 2019년 고용률은 64.6%로, 10년 전과 비교할 때 14.3%p 증가했다(통계청, 2019b).

기 시간은 36분인 것에 반해 남성은 1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b). 또한 가정의 일이 여성의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모성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아이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죄책감, 미안함, 불안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더욱 경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특히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는 직장 생활로 인해 부모의 역할에 몰입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전업모보다 더 많은 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김안나·권영숙, 2014; 예호선·안정신, 2020; 장서연·김영근, 2019; Sutherland, 2010).

과거에는 육아 중인 기혼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취업모를 이기적이고, 비정상적이며, 그들이 일하는 것은 아이와 사회에 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Wilson, 2006). 그러나 선행 연구는 엄마의 근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도 혹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엄마의 취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은 Gary Becker(1981)의 household production function of human capital(인적자본의 가구 생산 함수)에서 찾아진다. 이 이론의 핵심은 부모는 시장(market)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가정에서 아이의 인적자본을 쌓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금의 효과를 고정하면, 엄마의 직장에서 근무는 엄마가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양육의 시간을 감소시키므로 아동의 인지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3)</sup>. 그러나 일을 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영양, 건강, 안전, 학습기회와 같이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환경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긍정적 측면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의 근로는 부모의 현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취업모의 근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바라보는 사회학적 접근으로는 역할 모델(Role model)이 있다. 이 이론은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며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목표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목표를 세운 아이들은 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Heinrich, 2014: 126). 엄마의 근로는 성역할에 대해 평등한 태도를 추구하도록 하며(Wright & Young, 1998), 특히 엄마의 근로는 딸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성장과 경력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엄마를 직업인으로써의 역할 모델로 삼을 수 있다(Smith, 1981: 197-198).

3) Chase-Lansdale et al.(2003)에 따르면, 취학전 아동을 둔 엄마가 일을 하면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씩 감소해,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동과 보내는 시간은 감소하는 소득과 시간 간 거래(trade-off)가 발생한다.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엄마의 취업 여부가 아동의 정서적 및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Moorehouse(1991)는 엄마의 장시간 근로로 취학 아동과 시간을 적게 보내는 것은 인지 및 사회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영유아기 아동의 경우,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하며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는 아동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Hawkins, Cole, and Law(2008)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자원의 부족보다 엄마의 장기간 근무가 건강한 음식 및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비만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러한 관계는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Bernal(2008)은 엄마가 일을 해서 5세 미만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동의 시험 점수를 1.8% 낮추며, 엄마의 교육 수준과 인지적 능력을 고정시키면 가구 소득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함을 밝혔다.

반면에 일부의 연구에서는 엄마의 취업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취업모의 아동은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활동적이고, 의욕적이며, 학습성취도와 사회적응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Nelson, 1971; Baruch, 1972). Youngblut, Loveland-Cherry, and Horan(1991)의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운동발달이 엄마의 주당 근무시간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근로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근로 여부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 외에, 엄마의 근무 시간, 일의 성격, 엄마를 대체하는 보육자(care giver)의 질과 같은 맥락적 요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Poduval & Poduval, 2009). 엄마의 부재 시 제공되는 환경과 보육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은 엄마의 부재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엄마가 퇴근 후 집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3. 취업모 아동 행복감의 영향 요인

취업모는 일하는 직장과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는 두 영역을 넘나들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행복감과 가족의 행복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존재이다. 본 연구는 일과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의 연결 방식을 설명하는 전이이론(Spillover)을 기반으로 하여 취업모의 일자리 환경과 아동의 행복감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전이이론은 하나의 영역에서 경험한 감정, 행동, 가치, 기술 등이 다른 영역

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다. 일과 가족이라는 두 영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이의 과정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일 수 있고,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Edwards & Rothbard, 2000; Kelley, Galbraith, & Strong, 2020). 일-가정 부정적 전이의 기본 가정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노력, 에너지와 같은 심리적 및 생리학적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모가 하나의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사용하면 다른 영역에는 자원의 결핍이 발생하고, 이는 서로 다른 두 영역에서 오는 역할에 대한 압력이 양립 불가능한 상태인 역할 갈등으로 이어진다(Greenhous & Beutell, 1985: 77). 두 개의 역할이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취업모는 둘 중 하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모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에 일-가정의 긍정적 전이는 일-가정 향상(work family enrichment)으로 이어진다. 이 관점은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에너지를 찾기 때문에,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이 가진 에너지를 확장시킨다는 것이다(Marks, 1977). 개인은 다중 역할을 수행하면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데(Barnett & Hyde, 2001), 한 영역에서 느낀 만족감과 행복감은 다른 영역에서의 만족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Georgellis & Lange, 2012; Rothbard, 2001). 또한 하나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은 다른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Voydanoff, 2004).

위의 두 관점은 성격이 반대이지만, 하나의 역할은 다른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쳐 개인이 수행하는 다중 역할은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는 기초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 Rothbard(2001)는 전이이론에서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고, 각 역할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을 매개로 하여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하나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발생한다. 긍정적 감정은 다른 역할을 생산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성공적인 경험과 이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이어져 궁극적으로 두 역할 간에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반대로 한 역할을 수행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이는 다른 역할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Rothbard(2001)가 제시한 하나의 역할에서 얻은 성공적 경험은 그 경험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매개로 다음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원리를 취업모의 상황에 적용하면, 취업모가 직장 영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이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통해 가정

영역에서 아동 양육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에서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 두 역할의 매개가 되는 어머니의 행복감, 가정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는 아동의 행복감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임금, 회사의 인지도, 직장 내 인간관계, 업무의 성격, 성취감 등과 같이 일자리가 가지는 여러 특성이 개인에게 주는 이점과 한계에 대한 총체적 판단 결과이자 감정적 반응이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고용 시장이 열악해짐에 따라 취업 여부, 임금, 고용 안정성과 같은 객관적 지표보다 이에 대한 개인의 만족 정도가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취업의 질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가진 특성 중 근로자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특성의 집합인 것이다(Green,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취업모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Drobnič, Beham, & Präg, 2010; Guzi & Pedraza García, 2015; Heinrich, 2014), 나아가 취업모 아동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uzi & Pedraza García(2015)는 WageIndicator project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설문자료와 European Social Survey(ESS)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 여건과 직업의 특성이 주관적인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관적인 행복감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삶의 만족도, 직업만족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직업 만족도를 결정하는 직업의 특징들이 주관적인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주관적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경력개발 기회와 고용의 안정성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장시간 근무,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직업의 명성과 스킬 매치는 삶의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robnič, Beham, and Präg(2010)는 2003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업의 특성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무 여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유럽 국가보다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 불안정성, 장거리 출퇴근, 장시간 근무와 직업에 대한 싫증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직업에서의 자율성, 관리적 역할, 임금은 높은 만족감으로 이어졌다.

부모가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가정에서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감정에 따라 아이에 대한 양육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Galinsky(1999)에 따르면, 부모의 일에 대한 부담감, 업무 자율성(job control), 상급자와 동료의 지지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부모가 일과 관련하여 느끼는 감정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피곤함과 부정적 기분에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본인의 감정을 통해 아이에 대한 양육 방식이 달라지고, 이는 아이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Wierda-Boer & Rónká, 2004).

Strazdins et al.(2010)은 부모 직업의 질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부정적 혹은 반항적 행동,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취업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이 아동의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제희선·채혜경(2019)이 한국아동패널 7, 8,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유아기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존감을 매개로 아동의 집행기능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만족도는 행복과 자존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일-양육 이점

취업모는 가정에서는 아이의 엄마, 직장에서는 근로자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이 두 가지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도 혹은 부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 개인이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을 겪기도 하고 만족감을 얻기도 하는 과정은 역할이론(role theory)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역할이론은 사회 안에 있는 개인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기대하게 되는데, 개인에게 상충되는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을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Biddle, 1986: 82). 특히 취업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며 겪는 역할 갈등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취업모가 속한 가정과 직장은 모두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영역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은 양자택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며 얻는 이점에 더욱 초점

을 맞추고 있다(Barnett & Hyde, 2001; Thoits, 1983). 다중역할 수행의 긍정적인 측면은 인간은 복수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 제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완수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궁극적으로 만족감으로 이어진다(Marks, 1977; Sieber, 1974; Thoits, 1983).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관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arnett & Hyde, 2001: 785; Thoits, 1983).

국내 실증 연구로는 예호선·안정신(2020)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기혼 여성 중 전일제로 근무하는 300명을 대상으로 다중 역할 수행에 대한 지각 유형별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및 직업인 역할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긍정형’은 생활만족도가 ‘양가형’과 ‘부정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우울은 낮았으며, 다중역할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3) 모 행복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이 삶에 만족하는 긍정적인 정서는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송원숙·심재웅, 2018)과 학습 습관과 학교생활 적응(이상록·김은경·윤희선, 2015)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후 성인기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Yang, 2008).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엄마는 아동에게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동시에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 요인 중 하나이다(권연희, 2013). 행복한 엄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민감하고 반응성이 높고, 양육 방식에서 긍정적이고(Mize & Pettit, 1997; Musick & Meier 2012; Thompson, 1998), 일관적이기 때문에(김주리·김남희, 2014), 행복한 엄마는 행복한 아동을 만든다.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엄마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주리·김남희, 2014; 이은지, 2020; Bai, Repetti, & Sperling, 2016). 예를 들어, Bai et al.(2016)은 8-12세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를 수행한 결과, 부모가 긍정적 감정을 보일 때 아동의 긍정적 정서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관찰되어, 생활 맥락에서 아동의 행복감은 부모의 행복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엄마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탄력성과 생활스트레스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최아론·이영순, 2015).

이상의 취업모와 취업모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가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며 만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장에서는 근로자, 가정에서는 어머니이자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며 얻는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이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스스로의 행복감과 아이의 행복감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둔 연구는 부족하다. 둘째, 아동의 변인을 포함한 연구에서도 어린 아동이 어머니의 보살핌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취학 전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고, 고학년에서의 심화학습을 준비하는 시기로, 영유아와는 다른 형태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취업모의 근로 특성과 취업모의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위와 같이 취업모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다.

[가설 1]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은 모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취업모가 지각하는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 양육 이점은 모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 수집하고 있는 종단데이터인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데이터의 10차년도(2017)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성장 발달과정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발달특성과 양육실태와 요구, 기관 효과 및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수집,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인 시점인 10차년도(2017)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취업모 757명<sup>4)</sup>과 그의 아동인데, 본 분석에는 결측치를 제외한 706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 연구변수

### 1) 아동 행복감

아동의 행복감은 학교공부, 외모, 가족과 같은 아동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하는데,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MCS(2008) 아동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10차년도(초3)의 Cronbach's alpha는 .742이다<sup>5)</sup>

### 2) 모 행복감

모 행복감은 Lyubomirsky & Lepper(1999)의 도구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 실시 후 확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조사되었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조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10차년도의 Cronbach's alpha는 .919이다.

### 3) 일-양육 이점

Marshall & Barnett(1993)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가족 이점(work-family gains), 일-가족 갈등(work-family strains), 일-양육 이점(work-parenting gains), 일-양육 갈등(work-parenting strains) 등 총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과 양육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조사한 일-양육 이점의 4문항을 사용하였다<sup>6)</sup>.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으며,

4) 모 취업/학업 상태를 묻는 문항에서 취업 중(휴직 중 포함)과 취업/학업 병행 중인 사례를 선택함. 취업모의 연령은 평균 39.9세였으며(표준편차=3.63), 최종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았으며, 2~3년제 대학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각 26.6%, 24.8%순이었음.

5) 아동 행복감은 문항을 무작위로 묶어 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문항묶기(Item parceling)를 통해 몇 개의 측정변수로 투입하면 모형에서 측정변수의 수를 줄여 추정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Bandalos & Finney, 2001).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양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835이다.

#### 4) 모 일자리 만족도

취업모를 대상으로 일자리 만족도를 5점 척도(1=전혀 만족하지 않음, 5=매우 만족함)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자리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취업모가 인식하는 일자리 만족도와 일-양육 이점, 모 행복감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환경이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다변량 정상성(multivariate normal)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Byrne, 2010).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 절대값 2, 7미만일 경우 정규분포로 간주될 수 있다(Curran et al., 1996). 모수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추정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은 반복 추정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횟수를  $n=2,000$ 으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X^2$ , TLI, CFI, RMSEA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X^2$  차이검증은 표본 수나 비정규성에 민감하기 때문에(홍세희, 2000), 표본 수에 덜 민감한 CFI, TLI, RMSEA 지수를 바탕으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

6)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된다',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도 좋아지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것 같다',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고 느끼게 한다' 의 문항으로 구성됨.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아동의 행복감의 문항 간 상관은 .442~.605로 나타났으며, 모 행복감의 문항 간 상관은 .674~.896으로 나타났다. 일 양육이점 간 상관은 .495~.609로 나타났으며, 아동 행복감과 모 행복감 간 상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 행복감과 일 양육이점, 일자리 만족도 간 상관은 전체적으로  $r=.2$  내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왜도와 첨도는 각 절대값 2, 7 미만으로 나타나 정상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urran et al., 1996).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51***	1										
3	.605***	.442***	1									
4	.112**	.127**	.114**	1								
5	.114**	.104**	.117**	.896***	1							
6	0.072	0.061	0.063	.792***	.789***	1						
7	0.066	.108**	.127**	.707***	.703***	.674***	1					
8	0.027	0.031	0.011	.182***	.191***	.183***	.127**	1				
9	-0.020	-0.005	-0.004	.187***	.180***	.158***	.099**	.523***	1			
10	0.004	0.030	0.038	.202***	.214***	.163***	.127**	.609***	.603***	1		
11	0.064	0.059	.087*	.196***	.203***	.195***	.098**	.503***	.495***	.601***	1	
12	-0.005	0.008	0.016	.250***	.272***	.191***	.175***	.251***	.260***	.330***	.296***	1
평균	3.31	3.34	3.25	5.26	5.20	4.97	5.35	3.59	3.73	3.65	3.42	3.81
표준 편차	0.51	0.51	0.61	1.04	1.11	1.18	1.28	0.78	0.81	0.79	0.83	0.69
왜도	-0.755	-0.700	-0.724	-0.725	-0.667	-0.484	-0.575	-0.449	-0.746	-0.567	-0.320	-0.610
첨도	0.647	0.485	0.424	1.069	0.663	0.332	-0.076	0.255	0.994	0.531	-0.008	1.135

주: 1=아동행복감1 2=아동행복감2 3=아동행복감3 4=모 행복감1 5=모 행복감2 6=모 행복감3 7=모 행복감4 8=일 양육 이점1 9=일 양육 이점2 10=일 양육 이점3 11=일 양육 이점4 12=모 일자리 만족도

\*  $p < .05$  \*\*  $p < .01$  \*\*\*  $p < .001$

## 2.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홍세희(2000)는  $\chi^2$ 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CFI, TLI, RMSEA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CFI, TLI, RMSEA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FI, TLI가 .95이상, RMSEA는 .06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라고 볼 수 있다(Hu & Bentler, 1999). 그리고 홍세희(2000)는 CFI, TLI가 .90이상이며, RMSEA값이 .80이하일 경우 양호한 모형이라고 하였다. 이상에 기준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df=49)=65.881, CFI .996, TLI .995, RMSEA .022로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모형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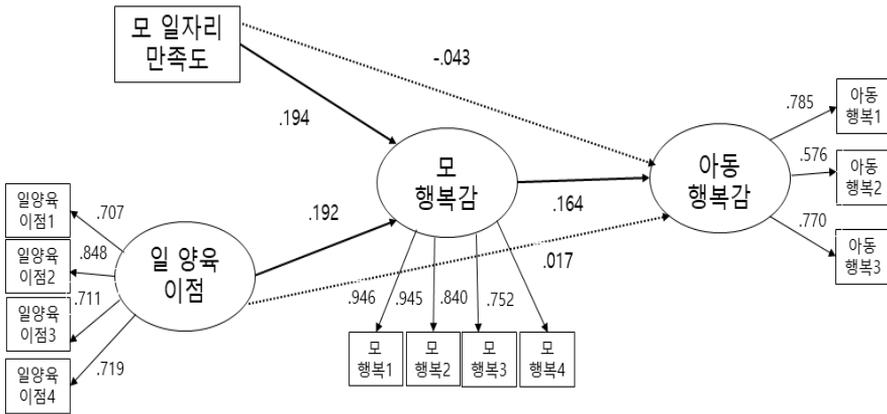
$\chi^2$	df	$\chi^2/df$	TLI	CFI	RMSEA (90%신뢰구간)
65.881	49	1.345	.995	.996	.022 (.000~.035)

구조모형 분석결과, 모형의 모수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 양육이점과 일자리 만족도는 모의 행복감에 각  $\beta=.192$ ,  $\beta=.194$ 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연구문제 1]. 그러나 일 양육이점과 모 일자리 만족도는 아동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연구문제 2]. 한편 모 행복감이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164$ ,  $p<.001$ )[연구문제 3]. 변인 간의 경로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3> 모형의 모수추정치

			b	$\beta$	S.E.	C.R.
일-양육 이점	→	모 행복감	.327***	.192	.076	4.309
모 일자리 만족도	→	모 행복감	.279***	.194	.059	4.770
일-양육 이점	→	아동행복감	.012	.017	.035	.329
모 일자리 만족도	→	아동행복감	-.025	-.043	.027	-.904
모 행복감	→	아동행복감	.066***	.164	.019	3.533

\*\*\*  $p<.001$ .



[그림 1] 구조모형의 추정결과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표준화된 계수).

일-양육 이점과 모 일자리 만족도가 모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일-양육 이점이 모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간접효과 표준화추정치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bootstrap)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 .009, .044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자리 만족도가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하였다 (95% 신뢰구간 .007, .033)[연구문제 4].

<표 4> 매개효과

경로	매개효과	신뢰구간 95%	
		하한값	상한값
일-양육 이점 → 아동 행복감	.032	.009	.044
모 일자리 만족도 → 아동 행복감	.032	.007	.033

주. 효과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양육 이점, 일자리 만족도와 같은 일자리 특성이 취업모의 행복감, 그리고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10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이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양육 이점, 일자리 만족도, 모의 행복감, 아동 행복감의 관계로 설정된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해, 연구의 모형이 연구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직장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취업모의 감정을 매개로 가정에서 아동의 행복감으로 전이된다는 전이이론에 기반을 둔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실재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 검정 결과를 경로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양육 이점과 일자리 만족도는 모의 행복감에 각각  $\beta=.192$ ,  $\beta=.194$ 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의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일-양육 이점과 일자리 만족도와 같은 취업모의 일자리 특성이 취업모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Drobnič, Beham, & Präg, 2010; Guzi & Pedraza García, 2015)와 맥을 함께 하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만족도는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으로(Green, 2006), 일자리가 가진 특성이 취업모의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또한 모 행복감은 아동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beta=.164$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모 행복감과 아동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주리·김남희, 2014; 이은지, 2020; Bai et al., 2016)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아동의 행복감이란 아동기의 발달뿐만 아니라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요인으로 설명한 바 있다(Yang, 2008). 아동이 행복한 아동, 그리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취업모의 행복감 증진이 필수적이며, 취업모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시사하였다.

셋째, 취업모의 일-양육 이점과 일자리 만족도가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실시한 결과, 두 변인은 모두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일-양육 이점은 모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정의 긍정적 전이이론에 토대를 두고 설정한 본 연구의 기본 전제, 즉 취업모가 일과 아이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며 느끼는 이점이 엄마의 행복감을 통해 아이의 행복감으로 이어진다는 원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느끼는

이점은 본인의 행복감과 나아가 아동의 행복감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Heinrich(2014: 130)는 부모의 직업이 갖는 특성 중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부모가 인지하는 직업의 안정성, 직장내 자율성, 스케줄의 유연성, 아이 양육을 위한 유급 휴직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즉,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직업적 특성들은 엄마의 행복감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복감까지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모의 일자리 만족도 또한 모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가 근로를 통해 얻는 만족감이 행복감이라는 정서를 매개로 아동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Strazdins et al., 2010; Wierda-Boer & Rónka, 200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의 취업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떠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일이 아동의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Strazdins et al., 2010).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일-양육 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취업모의 일-양육 병행 이점은 취업모 본인과 아이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이를 도모하기 위한 직장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취업모가 일을 하는 것이 취업모 자신과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 자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 자체에서 오는 성취감과 함께 일과 육아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이 있다. 2000년 초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지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제도들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은 직장 유형과 사내 분위기에 따라 달라(아시아투데이, 2020.09.18), 직장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은 사용 자체에서도 사내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만, 육아휴직 이후 직장에 복귀하여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걱정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동아일보, 2020.09.06). 제도적 뒷받침과 이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직장의 문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취업모의 일-가정 부정적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취업모의 행복감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취업모의 일-가정 부정적 전이를 방지하고 모-자녀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취업모가 일터로부터 부정적 감정을 털어버리는 과정이 필

요하다. 다시 말해,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 사이에 부정적 감정을 털고 긍정적 감정을 강화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어린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오후 7:30까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초등생 저학년은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그리고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 돌봄교실의 경우 단조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돌봄의 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맞벌이 자녀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더 많은 시간을 사교육에 의존하며 부모의 퇴근을 기다려야 한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돌봄교실이 보통 5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이러한 공적 돌봄 공백은 취업모가 직장에서 가정으로 부정적 감정을 털어버릴 시간적 여유를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취업모와 취업모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취업모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취학 후 아동을 대상으로 취업모가 일과 아이 양육을 동시에 하며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근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긍정적 감정이 본인의 행복과 아이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보고식 검사의 신뢰성을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패널을 사용하여 분석한 본 연구결과들의 대표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가구소득에 따라 아동 및 모의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정이나, 2015; Aassve et al., 2012)를 바탕으로 추후 소득계층(예, 저소득 계층/고소득 계층)을 구분하여, 집단별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모의 근로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취업모의 고용형태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근로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지지하는 직장의 제도, 문화적 측면과 실제 이용한 제도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를 검증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는 취업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연희(2013). “유아의 행복에 대한 유아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 행동의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4호. 525-537.
- 김나현·이은주·곽수영·박미라(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188-200.
- 김신영·백혜정(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사회학*. 제42권 제6호. 140-173.
- 김안나·권영숙(2014). “취업모의 일-어머니 역할 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10호. 375-384.
- 김종백·김태은(2008). “학교행복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제22권 제1호. 259-279.
- 김주리·김남희(2014).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 간 관계”. *생애학회지*. 제4권 제1호. 19-32.
- 동아일보(2020.09.06.). “‘역대 최저’ 출산율, 이유 있었네…직장 여성 36% “육아 휴직 눈치보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06/102812391/1> 에서 2021.03.07. 인출.
- 박병선(201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 및 성별 간 차이분석”. *인문사회* 21. 제10권 제1호. 1121-1132.
- 성정혜·김춘경(2019).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이 일-가정 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여성연구*. 제101권 제2호. 111-133.
- 송원숙·심재웅(2018).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857-879.
- 신성철(2015).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의 이중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4권 제2호. 265-280.
- 심재휘·이기혜(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성별 및 학업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제24권 제1호. 199-225.
- 아시아투데이(2020.09.18.). “서울 직장맘 고층 3년간 1만6000여건…상당건수 매년 증가”.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918010011723>에서 2020.1.17. 인출.

- 양소남·신창식(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 사회연구. 제31권 제3호. 70-103.
- 예호선·안정신(2020).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역할지각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의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5권 제2호. 123-141.
- 윤형철·은혁기(2014). “초등학교 중학년용 불안 검사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제15권 제1호, 359-370.
- 이상록·김은경·윤희선(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4호. 413-438.
- 이은지(2020).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행동 및 초등 전환기 아동의 행복감 간의 중단적 교류 및 매개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서연·김영근(2019). “생계형 워킹맘의 일-가족 다중역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4권 제3호. 315-336.
- 정이나(2015).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제희선·채혜경(2019). “유아기 어머니의 일자리 만족도와 일상적 스트레스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활용한 매개효과”. 육아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123-146.
- 최아론·이영순(2015). “어머니의 행복감과 초등학생 자녀의 행복감 관계에서 자녀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6권 제1호. 337-351.
- 통계청(2019a). 2019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19b). 2019 일-가정 양립 지표.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161-177.
- Aassve, A., Goisis, A., & Sironi, M. (2012). Happiness and childbearing across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8(1), 65-86.
- Afifi, T. D., Harrison, K., Zamanzadeh, N., & Acevedo Callejas, M. (2020). Testing the theory of resilience and relational load in dual career families: relationship maintenance as stress management.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48(1), 5-25.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 Badri, M., Al Nuaimi, A., Guang, Y., Al Sheryani, Y., & Al Rashedi, A.

- (2018). The effects of home and school on children's happin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2(1), 17.
- Bai, S., Repetti, R. L., & Sperling, J. B. (2016). Children's expressions of positive emotion are sustained by smiling, touching, and playing with parents and siblings: A naturalistic observational study of family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52(1), 88-101.
- Bandalos, D. J.,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69-296). Mahwah, NJ: Lawrence Erlbaum.
-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y*, 56(10), 781-796.
- Baruch, G. K. (1972). Maternal influence upon college women's attitudes toward women and work. *Developmental Psychology*, 6(1), 32-37.
- Becker, G.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nal, R. (2008). The effect of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are on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9(4), 1173-1209.
- Biddle, B. J. (1986). Recent developments in rol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1), 67-92.
- Byrne, B. M. (201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Y: Routledge.
- Cankaya, C. (2020). An Explanation of Happiness with Secure Attach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Hope: The Case of Turkish University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1), 433-444.
- Carr, A. (2004).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human strengths*. London: Brunner Routledge.
- Chase-Lansdale, R. L., Moffitt, R. A., Lohman, B. J., Cherlin, A. J., Coley, R. L., Pittman, L. D., Roff, J., Votruba-Drzal, E. (2003).

- Mother's transitions from welfare to work and the well-being of preschoolers and adolescents. *Science*, 299, 1548-1552.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robnič, S., Beham, B., & Präg, P. (2010). "Good job, good life? Working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in Europe", *Social Indicators Research*, 99(20), 205-225.
- Edwards, J. R. & Rothbard, N. P. (2000). Mechanisms linking work and family: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family construct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178-199.
- Galinsky, E. (1999). *Ask the children*. NY: William Morrow.
- Georgellis, Y. & Lange, T. (2012). Traditional versus secular values and the job-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across Europe.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23(4), 437-454.
- Goswami, H. (2014).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sonality. *Child Indicators Research*, 7(1), 119-140.
- Green, F. (2006). *Demanding work: The paradox of job quality in the affluent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 Guzi, M. & Pedraza García, P. (2015). A web survey analysis of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36(1), 48-67.
- Gilman, R., & Huebner,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205.
- Haddock, S. A., & Rattenborg, K. (2003). Benefits and challenges of dual-earning: Perspectives of successful couples. *The American*

- Journal of Family Therapy*, 31 (5), 325-344.
- Hawkins S. S., Cole, T. J., Law, C. (2008). Maternal employment and early childhood over-weight: Findings from the UK Millennium Cohort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2, 30-38.
- Heinrich, C. J. (2014). Parents' employment and children's wellbeing. *The Future of Children*, 24(1), 121-146.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elley, H., Galbraith, Q., & Strong, J. (2020). Working moms: Motherhood penalty or motherhood return?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6, 1-7.
- López-Pérez, B., & Fernández-Castilla, B. (2018). Children's and adolescents' conceptions of happiness at school and its relation with their own happiness and their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9(6), 1811-1830.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5.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131.
- Maftai, A., Holman, A. C., & Cârlig, E. R. (2020). Does your child think you're happy?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children's happiness and parenting styl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5074.
- Malinen, K., Kinnunen, U., Tolvanen, A., Rönkä, A., Wierda-Boer, H., & Gerris, J. (2010). Happy spouses, happy parents? Family relationships among Finnish and Dutch dual earn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2), 293-306.

- Marks, S. R. (1977).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Some notes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921-936.
- Marshall, M.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1), 64-78.
-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2), 312-323.
- Moorehouse, M. J. (1991). Linking maternal employment patterns to mother-child activities and children's schoo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295-303.
- Musick, K. & Meier, A. (2012). Child well-being and the long reach of family relationships. In: Booth A., Brown S., Landale N., Manning W., McHale S.(Eds.) *Early Adulthood in a Family Context*(pp. 105-120). National Symposium on Family Issues, vol 2. NY: Springer.
- Nelson, D. D. (1971). A study of personality adjustment among adolescent children with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4(7), 328-331.
- OECD(2017). *How does KOREA compare on child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Poduval, J. & Poduval, M. (2009). Working mothers: how much working, how much mothers, and where is womanhood? *Mens Sana Monographs*, 7(1), 63-79.
- Rothbard, N. P. (2001). Enriching or depleting? The dynamics of engagement in work and family rol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6(4), 655-684.
- Sieber, S. D. (1974). Toward a theory of role accum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4), 567-578.
- Smith, J. E. (1981). The working mother: A critique of th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2), 191-211.
- Stafford, L. (2016). Marital sanctity, relationship maintenance,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37(1), 119-131.

- Strazdins, L., Shipley, M., Clements, M., O'Brien, L. V., & Broom, D. H. (2010). Job quality and inequality: Parents' jobs and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ural difficulties. *Social Science & Medicine*, 70(12), 2052-2060.
- Sutherland, J. A. (2010). Mothering, guilt and shame. *Sociology Compass*, 4(5), 310-321.
- Thoits, P. A. (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reformulation and test of social isolation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74-187.
- Thompson, R. A. (1998). Early sociopersonality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pp. 25-104).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Verkuyten, M., & Thijs, J. (2002). Schoo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performance, peer relations, ethnicity and gend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2), 203-228.
- Voydanoff, P. (2004). The effects of work demands and resources on work to 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6(2), 398-412.
- Wierda-Boer, H. & Rónkai, A. (2004). 'I wish my mother enjoyed her work'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s' work and their links to adolescent psychosocial well-being. *Young*, 12(4), 317-335.
- Wilson, D. S. (2006). A New Look at the Affluent Worker: The Good Working Mother in Post-War Britain. *Twentieth Century British History*, 17(2), 206-229.
- Wright, W. D., & Young, D. E. (1998). The effect of family structure and maternal employment on the development of gender-related attitudes among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9(3), 300-314.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 Youngblut, J. M., Loveland-Cherry, C., Horan, M. (1991). Maternal employment effects on families and preterm infants at 3 months. *Nurs Res*, 40(5), 272-275.

Abstract

##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Happiness and the Happiness and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Sihyun Kim\*·Sunyoung Woo\*

Even though the number of dual-income households has been increasing, the perception that child care and rearing is the role of women at home has remained. A few empirical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have been conducted. Still, studies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working environment of working mothers and children's happiness have been sparse. We ai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ing condition of working mothers and children's happiness. For this, we exploite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10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l of this study fitted the data well. Secon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hypothesis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 found that work-parenting gains and job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maternal happiness whereas, the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ren's happiness. And the happiness of working mother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children's happiness. Third, work-parenting gains and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influenced positively on children's happiness through mother's happiness. Also, these indirect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happiness of working mothers and their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s** : Children's Happiness, Working Mother, Work-Family Balanc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

\* First Author: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Korea University, University Policy Research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Research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